

프랑스語의 有機組織에 의한 音聲要素에 대한 考察

高 元 禧

— 目 次 —

- | | |
|----------------------|--------------|
| I 序 論 | 2. 音聲語와 綴字要素 |
| II 프랑스語 音聲體系의 構造的 特徵 | 3. 音聲語와 意味價値 |
| III 音聲要素와 다른 要素와의 關係 | 4. 音聲語와 文法價値 |
| 1. 音聲語와 辭典語 | IV 結 論 |

I 序 論

言語는 《4 가지 基本體系》의 基礎위에서 있다. 첫째 〈두가지 記號體系〉 즉 音聲體系와 綴字體系요, 둘째는 〈두가지 價値體系〉 즉 意味體系와 文法體系다. 本稿는 音聲要素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語의 4 가지 基本要素를 各各 그 生成과 構造를 論하고 프랑스語의 有機的인 組織속에서 各各 그 役割과 相互關係를 試圖해 보고져 한다. 外側上으로 보면 프랑스語는 우선 그 固有의 法則과 本質的으로 音聲學上의 法則에 準해서 機能하는 하나의 音聲體系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言語속에는 모든 부분이 密接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의 부분을 正確히 研究하기 위해서는 個別的으로 取扱해서 考察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從來의 研究方法으로는 諸要素間에 存在하는 關係는 檢討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本稿는 이러한 皮相的인 方法을 피하기 爲해서 靜態的이고 共時的인 觀點으로 그 特有의 性格을 考察하고 諸要素間의 同時的인 結合속에 《機能하고 있는》 프랑스語를 관찰해 볼까 한다. 여기에서 重點을 두고 論할려는 音聲體系는 物理的 法則에 立脚하고 있지만 言語의 보다 內的인 要素에도 연관시키고져 한다.

言語의 音聲學은 音韻研究의 基礎役割을 다 하지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의 목적은 音聲體系의 機能的인 役割을 理解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Ⅱ 프랑스語 音聲体系的 構造的 특징

여기에서 프랑스語의 여러가지 음의 發生의 <메카니즘>을 상세히 檢討한다든지 음의 一覽表를 作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것은 物理學과 生理學의 領域에 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表現體系로서의 프랑스語 音聲体系的 獨自性を 論하고저 한다. 이 體系는 一般的으로 36개의 음으로 形成되고 母音과 子音으로 分類된다.

語音에는 高低, 長短, 強弱 및 音色 (la hauteur, la durée, l'intensité et le timble)의 네가지 性質이 있는것 처럼 母音은 音色, 持續, 高低를 가지는 음이다. 母音의 數는 16개이다. (口腔)母音(voyelle buccale) 다시 말해서 空氣가 입을 通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음이 12개가 있다. 調音點은 口の 前方에 있는 것. (즉 [i][y],) (중앙에 있는 것 [a], 後方に 있는 것 [o])로 分類된다. 또한 發音할 때 口모양이 넓게 벌어진다든지 ([ε]), 좁혀진다든지 ([e])에 의해서 分類할 수도 있다.

그 위에 프랑스語의 特徵의인 事實은 네가지 鼻母音 즉 空氣가 코를 통해서 소리내는 음 [ɛ̃], [œ̃], [ɑ̃], [ɔ̃] 등이 있다. 처음 두가지는 口の 前方 나머지 두개는 中央과 後方に 調音點이 있다. 以上이 프랑스語의 音聲体系的 16가지 基本音이다. 거기에 3가지 半母音(半子音) [w](avouer) [y](lui)와 [j](grenouille)를 附加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鍵盤은 매우 豊富하지만 이것을 여러가지로 組合시킨 母音을 結合해서 다스릴 數를 늘리는 것은 原則上 可能하다. (2音으로 二重母音 aé, éo, uo 등 3音으로 三重母音 aoué, éiye 등) 近代 프랑스語에는 이와같은 음은 없다. (우연으로 인한 二重母音은 제외하고) 英語에는 9가지의 二重母音, 3가지의 三重母音이 있지만 프랑스인의 귀에는 이와같은 複雜한 母音轉調를 싫어한다. 이러한 點은 프랑스語의 母音의 音域은 英語나 獨語와 같은 他國語에 比해서 매우 狹少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語의 音聲의 鍵盤이 廣範圍한 것은 特히 子音의 導入에 의해서인 것이다. 子音은 口腔 또는 거기에 부수되는 器官, 목젓, 舌, 口蓋, 齒, 脣 등의 움직임에 의해서 소리를 내는 음이다. 實際 이와같은 음은 하나의 母音 (e[ə]라도 좋다.)과 結合되어 發音되면 마침내는 明確히 들을 수가 있게 된다. 調音은 같으나 口모양을 크게 벌이거나 작게 벌이느냐에 따라서 매우 單純한 方法으로 子音은 종류에 따라 그 數가 2倍가 된다. 그래서 3가지의 <閉鎖音>과 3가지의 <繼續音>은 無聲音 ([p, k, t] 및 [f, ʃ, s])와 有聲音 ([b, g, d] 및 [v, ʒ, z])가 된다.

두가지의 <流音> ([l, r])과 3가지의 <鼻音> ([m, n, ɲ])과 더불어 전부 17子音이 된다. 이것이야 子音間에 19가지의 母音과 結合되어 數百個로 組合할 수 있는 可能性이 成立된다. 프랑스語에는 이와같은 음의 組合은 실로 豊富하다. 보다 單純한 것은 音節이지만, 이것을 定義한다는 것

은 매우 微妙한 問題다. 音節의 組合으로 이루어지는 낱말은 現實上 때로는 潛在的 意味價値나 文法價値가 音聲要素에 연관되어 가는 것이 그 特色인데 對해서 音節은 그 自體가 音聲上의 價値以外는 없다.

音節은 낱말속에 놓여져서 비로서 言語의 要素가 된다. (例: je boirai, je boirais) 다시 말해서 音節은 音의 材料의 一要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낱말은 言語의 要素가 될 수가 있다. 音의 組合속에서 먼저 子音間의 組合을 考察해 보면 ts, bl, pl 등이 프랑스語에서는 이와같은 組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子音과 子音의 組合은 각각 모음과 각각 組合된다. 거기에서 그 構成에 加해지는 音素(phonème)의 數에 의해서 長語와 단어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母音만으로도 하나의 낱말이 될 수가 있다. (例: à, en, haie, un, eau, hue), 하나의 子音(母音 e에 붙어서)만으로도 하나의 낱말이 될 수가 있다. (例: te, se, je, le, me, que, de 등)

다음에는 두개의 母音이 結合되어 낱말을 만들 수가 있다. (例: hai) 그러나 보다 多樣한 것은 다음과 같은 組合이다.

母音+子音 (例: houle, haute, île, âge),

子音+母音 (17개의 子音이 19개의 母音과 組合되면 理論上 323개의 組合이 可能하다.

(例: pas, paon, paix, pin, pot, pont, 등). 다음에는 子音素의 組合이다. 理論上으로는 8가지의 型이 된다. [V=母音: G=子音].

VVV (몇개의 擬音語를 제외해서 例가 없다.)

CCC (pst!)

CVV (roi, chien)

VVG (aède, haïr)

CVC (bac, toc)

VGv (héron, orée)

VCC (âcre, aigle)

CCV (plat, craie)

마지막으로 3音素 以上の 組合이다.

例 4音素 VCVC (étape)

5音素 VCVCV (avalier, arrivée)

6音素 VCVCVC (arrivage, amulette)

6音素 以上이 되면 낱말은 드물게 된다. 프랑스語는 간단하고 짧은 낱말을 좋아한다. 길고 복잡한 낱말을 간단히 해서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特히 獨逸語와는 對照的인 現象이다. 이와같이 單純한 要素에서 數千個라도 組合시킬 수 있는 可能性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音

聲體系와 他國語(例: 英語, 獨語와 比較해서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은 프랑스語의 母音과 子音의 發音이 明瞭하다는 것이다. 프랑스語에는 獨語와 같이 목소리가 실音이나 딱딱한 音이 없다. 中間音은 적고 (半子音이 3 가지→佛語) 英語, 獨語에 있는 [tʃ], [ts] 같은 半閉鎖音도 없다. 그래서 <明瞭> <明確> <節度> 이것이 프랑스語의 音聲體系의 特徵인 것이다. 프랑스의 言語學者 André Martinet는 英語와 獨語의 單純語彙素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英語와 獨語에서 單純語彙素는 다음과 같은 音節을 包含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音節의 母音은 二重母音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길거나 짧거나간에 初頭에 놓여진다. 어떠한 子音素나 音素群이라도 初頭에 놓일 수 있다면 앞에 붙는다. 만약 모음이 짧으면 하나 또는 두개 以上の 子音이 받드시 뒤에 붙는다. 또한母音이 길다든지, 二重母音으로 構成되어 있으면 語尾에 붙는다.

이 音節은 accent을 붙일 수가 있는데 만약 accent을 붙일 수가 없는 音節은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 음절의 모음은 一般的으로 音色이 [ə]로서 뒤에 자음이 하나 따라오거나 아니면 例外的으로 子音群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accent을 붙일 수 있는 모음이 짧아지게 되면 \acute{V} , 짧으면 \check{V} , accent이 붙지 않는 모음은 V , 자음 또는 子音群을 C 로 표시해 보면 $(C)\acute{V}(CVC)$ 및 $(C)\check{V}C(VC)$ 라는 式을 얻어 낼 수 있다. 여기에 괄호안에 있는 要素는 任意的이다.

英語I, 獨語Ei는 \acute{V} 型, 英語ill, 獨語all는 $\check{V}C$ 型, 英語fee, 獨語roch는 $C\acute{V}$ 型, 英語fill, trill, strip, strict, 獨語voll, tritt, streng, Takt는 $C\check{V}C$ 형, 英語wonder, bottle, 獨語Mutter, Schatten는 $C\check{V}CVC$ 형이 된다.

言語의 語彙素의 正規形은 標準形(torme canonique)라고 말할 수가 있다.

中國語의 標準形은 單音節이고 세브族系 諸言語는 三子音으로 中間母音은 있거나 없거나 한 다. 프랑스語에는 標準形을 찾아내기가 무척 힘들다. 그러나 日常用語로서 긴 낱말 métró, vélo, télé, té-vé(TV) 형의 二重音節로 끝치는 傾向이 있다.”

프랑스語는 낱말중에서 音節이 충돌하지 않고 連讀함과 同一하게 文中에서도 낱말은 훌륭한 연독을 한다. 母音省略(élision)이나 連讀(liaison)에 의해서 낱말이 서로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 文章속에서 成分에 따라 音聲上 하나의 긴 音聲語를 形成한다.

(例: Nous allons envisager une hypothèse. →[nuzalɔzävizaʒerynipɔtɛ : z]라고 발음된다.

文中에서 이와같은 낱말의 融合은 더구나 소위 강한 accent이 弱한 強勢에 依해서 助長된다. 이러한 accent은 原則上 實際로 발음되는 最後의 音節에 붙는다.

프랑스語에는 이러한 accent이 音色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음에 한층 힘을 주어서 그것을 강하게 하는데 있다. 또한 佛語계는 짧은 낱말, 特히 單音節語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1) André Martinet, *É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Librairie Armand Colin, Paris, 1970) P. 132-133

accent이 약하게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單音節語는 無強勢가 되는 傾向이 되고 있다. 짧은 낱말이 文法上에 補助語種(冠詞, 形容詞)이나 關係語種(前置詞, 接續詞)인 경우는 特히 그러한 現象이 일어난다.

Ⅱ 音聲要素와 다른 要素와의 關係

1. 音聲語와 辭典語

音聲語는 몇개의 낱말 또는 辭典語의 부분이 集合되어 形成된다. 다시 말해서 les beaux enfants이라는 表現으로 3가지 辭典語가 하나의 音聲語를 形成하고 있고 맨끝 낱말의 最終音節에 다만 하나의 強한 accent이 놓여진다.

[lebozāfā]. 이와같은 音聲語는 《氣息의 그룹》(groupe de souffle)를 形成한다. 다시 말해서 一息으로 발음되는 groupe로서 그 중에는 Liaison이 行해진다. 音聲語는 다만 하나의 《存在》, 같은 하나의 《行爲》, 같은 하나의 觀念을 表示하는 辭典語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傾向이 많다. (例: le beau chien, Travaillez bien) 그 結果 때로는 낱말을 變形하고 낱말의 起源을 翻覆하게 되는 膠着現象을 招來하는 경우가 있다. 即 意味의 變化를 惹起시키는 可能性이 있는 現象이다. 이러한 現象은 冠詞와 그 關係하는 名詞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例: l'agriotte가 la griotte로 變形하는 경우). 이와같은 現象은 時代가 經過하면서 上記와 같이 變形되어 버린 낱말이 몇개가 있다. (例: l'endemain→le lendemain, l'ierre→le lierre등). 오늘날에도 l'évier라고 할 것을 le levier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 民衆語의 動詞 Zyeuter의 形成도 同一하게 說明할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les yeux ([lezjɔ̃])라고 하는 音聲語에서 그 起源을 찾아 낼 수가 있겠다.

2. 音聲語와 綴字要素

음운 하나하나, 하나의 文字가 對應하고 있다면 論理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경우는 表音式 記入法을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발음 그대로 옮겨 쓸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綴字法의 問題는 考察할 必要性이 없게 된다.

言語에 있어서 가령 이태리語와 같이 그러한 理想에 가까운 言語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完全히 實現하고 있는 言語는 없다. 그 理由를 理解하는 것은 간단하다. 音聲體系는 그 固有의 法則, 音聲法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條件下에서 兩體系間의 몇가지 點으로 完全한 對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多少 不安全性을 免치 못할 것이다. 프랑스語에는 兩

體系間的 對應은 매우 不安全하다. 먼저 프랑스語에는 36가지 음을 表示하기 爲해서 自由로 表記할 수 있는 文字가 26가지 밖에 없다. 特히 19가지 모음을 表示하기 爲해서 文字는 6가지 뿐이다.

프랑스語에서 使用하고 있는 Alphabet는 프랑스語를 爲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로-마人을 通해서 물려받은 遺産이다. 로-마人은 그것을 希臘人을 通해서 希臘人은 이집트人을 通해서 빌어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에 의해서 두개 以上の 文字를 相合시키면 그 文字가 各各 獨立해서 獨自가 가지고 있는 음을 고려하지 않고 變形된 음으로 表示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例 o+i[wa]를 表示 (roi, loi).

a+n[ā]를 表示 (Caléstan, ange).

a+u[o]를 表示 (aussi, aubépine).

a+i[e]를 表示 (je chantai).

이와같은 不合理한 原因이 上記한 事實을 立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音聲體系와 綴字體系는 各各 獨立해서 發達하고 있다. 表記는 變形하고 있지 않는 反面에 발음은 變化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잘 알려지고 있는 音節[oi]의 경우가 그렇다.

11世紀 發音 [rei], [lei] 綴字 rei, lei

12 " " [roi], [loi] " roy, loy

17 " " [roe], [loe] " roy, loy

19 " " [rwa], [lwa] " roi, loi

綴字體系는 綴字體系로서 時代가 經過함에 따라 變化狀態를 보이고 있지만 音聲體系와는 獨立해서 變化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이다. 결국 音素와 表記 즉 음과 文字사이에는 合理的인 對應이 存在하지 않는다, 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그것을 프랑스語에서 考察해 보면 :

1) 하나의 음을 매우 相違한 方法으로 표기할 수가 있다.

例 : [a]의 음을 a(dame), e(femme), ea(Jeanne), ao(paon)등 [o]의 음을 o(pot), au(aubépine), eau(beau)등으로 표시 할 수가 있다. 子音에 대해서도 同一하다. [s]의 음을 C(douce)ç(François), SC(sceau), SS(assassin)등 [K]의 음을 c(acaïjou), qu(quitte), cc(accaparer), k(kaolin), cqu(acquérir)등으로 각각 표기할 수가 있다.

2) 같은 文字 또는 文字群이 相違한 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例 : 文字 e는 [a](femme), [e](presser), [ə](mesurer). 文字 u는 [ʊ](rhum), [y](rhume), [w](aquatique)의 음을 표시한다. que는 完全히 音價를 가지고 있지않다.

3) 文字에 의해서 발음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우 弱한 음만을 지니는 경우 : 無音 h (l'histoire)와 無音 e (la fumée)의 경우가 그러하다. 複數가 발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les armoires, ils travaillent). 語尾의 子音字도 同一한 現象이다. (lit, poids). 이것들은 다만 連續할 때 그 自體의 음을 나타낸다. (les poids et mesures). 또한 二重子音은 발음상에 그 음을 모두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sottise, souffrir).

4) 單一音(母音과 子音)속에는 두개 以上の 文字가 組合되어 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ou[u], en[ã], in[ɛ], on[ɔ], un[œ], 또는 ch[ʃ], gn[ɲ] 등

以上과 같은 現象에서 近代 프랑스語는 綴字와 發音間의 隔差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考察할 수가 있겠다.

16世紀에 文法學者들이 語源에 立脚해서 만들어 낸 文字에는 綴字法上으로 子音字가 발음되는 傾向이 있다.

(例: dōmpteur를 [dɔ̃ptoe:r]로 발음하지 않고, [dɔ̃ptoe:r]로 발음하는 프랑스인들이 많고 또한 同一하게 Sculpteur는 [skyltoe:r]로 발음하지 않고 [skylptoe:r], grammaire[grame:r]를 [grame:r]로 발음하는 경우다. 프랑스의 言語學者 Albert Dauzat는 이와같은 現象을 아래와 같이 言及하고 있다.

“dompter의 p의 발음에 있어서 이 動詞는 Latin語(domitare)에서 나온 것으로 P字가 끼어 들 수가 없다. 文法學者들의 解釋上의 見解로 綴字上에 잘못을 저지르는 한 例이다. 또한 例로 gajure라고 하지않고 gajeure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로 많다. 이것은 gageure가 接尾辭 -ure에 대해서 gager의 轉化語이며 또한 古形의 gageüre의 省略形이다.”²⁾

그리고 프랑스의 言語學者 Saussure는 이와같은 傾向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마 이와같은 變化現象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고 無用의 文字가 實際 발음하게 될 것이다. Paris에서는 이미 sept femme에 “t”, neuf garçons에 “f”가 발음되고 있다.

言語學者 Darmesteter는 Vingt의 마지막 두 文字 — 이것은 정말 綴字法上 괴이한 現象이지만 앞으로 발음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보고 있다」³⁾

이와같이 表記는 발음에 對해서 한편 安全作用을 다른 한편으로 混亂作用을 惹起시키고 있다. Saussure가 指摘하고 있는 言語現象은 否定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綴字法이 발음에 점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3. 音聲語와 意味價値

文法學者에 의하면 言語上의 價値는 어떠한 段階라도 積極的 價値보다는 오히려 差異的 價値

2) Albert Dauzat, La langue française, sa vie, son évolution, P.88

3)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55. P.54

를 더 내세우는 學說이 많다. 낱말에 있어서 重要的 것은 음 그 自體가 아니라, 音聲上의 差異點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實際 낱말을 다른 낱말과 區別할 수 있는 것은 그 음성상의 差異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 差異點에서 意味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同綴語中에서 발음의 差異로 因하여 비로서 區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例 1) Nous portions des portions de viande.

2 (Son fils s'est piqué aux fils de fer.

또한 綴字上으로 확실치 않은 接頭辭 接尾辭를 明確히 할 수 있는 것은 발음상의 差異點에 있는 것이다. (上記 例 gageure에서 볼 수 있다).

辭典語가 音聲語中에 은폐되기 때문에 낱말의 意味가 混亂을 惹起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연달아서 애매한 文이 되어버린다.

프랑스의 作家 Marc monnier(1829~1885)의 有名한 詩句를 引用해 보면 :

Gal, amant de la Reine, alla, tour magnanime,

Galamment de l'arène à la tour Magne, à Nimes.

이와같은 애매한 文을 피하기 爲해서는 大體로 安全되고 있는 語根의 발음이라든지, 너무 變形化되지 않고, 明確히 認識할 수 있는 接頭辭, 接尾辭에 의해서 理解할 수가 있다. 例 in-, -able, -age 등 또는 음성 그룹의 要素의 位置를 竊意하는 方法도 있다. 例. Je vois très bien. [ʒvwatɾɛbjɛ̃] 이것을 Je ne vois pas fort bien, Je ne vois pas bien 등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이와같은 觀念에서 je—vois—très—bien은 네가지의 辭典語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識別은 언제나 可能的 것은 아니다. 우리 人間에게는 懶怠, 無知, 習慣의 힘이 라는 것이 있다. 그 結果 音聲의 綴字가 形成되어 元來의 낱말이 그 本來의 價値를 상실하고 있다. (cf. longtemps, parce que, jamais)

그런데 類推의 傾向에서 重大한 混同이 招來되는 경우가 있다. 語形이 音聲上 그와 비슷하지 만 意味는 아주 相異한 다른語(類音語)로 그것을 同化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Daudet 가 <類音索引> (attraction paronymique)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그 結果 낱말이 多少 變形되어 元來의 意味와는 아주 相異한 意味를 나타내게 된다.

Courte-pointe의 例가 그 좋은 본보기다. Latin 語의 Cultica puncta를 프랑스語에서 CouI-te pointe 또는 Coute-pointe라는 語形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Coute는 形容詞 courte와 混同하여 아주 相異한 意味를 나타내어 그 名稱에는 별로 適合치 않는 낱말 Courte-pointe가 된 由來이다. 이 例는 音聲要素가 意味價値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했는가를 잘 立證하고 있다.

4. 音聲語와 文法價値

音聲語는 文法上的 關係로 結合되고 있는 낱말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例 冠詞, 付加形容詞와 그것이 關係하는 名詞, 主語와 動詞 cf. Le beau chien! Le vent souffle).

이와같은 文法上的 結合이 各各 一種의 낱말, <統辭語>로서 機能을 하고 있다. 勿論 統辭語는 모두 音聲語가 아니고 그 反對現象도 아니다. 그러나 統辭語는 本來 音聲語를 構成하고 있으므로 그 結果 音聲語는 이미 統辭語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音聲語는 統辭語를 연상케 하는데 잘 使用되는 手段이 된다. 낱말의 音聲上的 變化는 文法價値의 移行 또는 變化에 對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같은 動詞語根의 發音이 變化해서 때로는 叙法과 相違한 경우 (cf. je peux와 je pourrais,) 時制와 相違한 경우(je peux와 je pus) 人稱과 相違한 경우 (nous pouvons과 ils peuvent) 數와 相違한 경우(je peux와 nous pouvons)등을 表示 할 수가 있겠다. 그와 꼭 같이 語尾에서 語種이 暗示되는 경우도 있다.

(例: 語尾-er, -ir, -oir에서 動詞形인 것을 語尾 ment에서 副詞인 것으로 識別할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 語尾가 Cathégorie를 表示할 경우도 있다. 發音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動詞 活用語尾, 名詞의 女性이나 複數의 語尾가 그 機能을 하고 있다. 그리고 連讀으로 一致의 현상이 明確히 될 수 있는 경우는 統辭法上的 여러가지 機能이 그것에 依해서 正確히 表示된다.

(例 les grands hommes) 이것이 近代 言語學者들이 形態素라고 불리우는 要素인 것이다. 音聲要素가 매우 커다란 文法上的 影響力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統辭體系의 여러가지의 變形을 惹起시키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助長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語의 文章에는 音聲上的 單調性이 文法에 影響을 미치게 하고, 지금도 그 影響을 미치게 하고 있다. 프랑스語가 屈折語가 되지 않는 것은 部分的으로 accent이 充分치 않기 때문이다. 語尾를 發音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結果 屈折語尾 代身에 特別한 낱말 (前置詞, 冠詞, 動詞活用の 代名詞)를 부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프랑스語의 分析的 傾向이 이와같이 해서 助長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로서 音聲體系가 프랑스語에서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으로 結論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言語의 活動中에서 文法價値 또한 重要的 機能을 하고 있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言語의 土臺, 即 그 存在 自體를 構成하고 있다. 그래서 言語에 있어서의 統一性, 安全性과 同化力을 주는 要素의 機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文法價値는 다른 言語要素를 궁극적으로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文法機能은 記號의 分野에서는 아무런 結果도 招來하지 않는다. 音聲上이나 綴字上的 變化에 의해서 表示되는 文法價値도 있다. 하나의 그룹속에 포함되는 하나 또는 두개이상의 文字에 나타난다. (例 Meurs, Mourons). 때로는 語尾變化에 나타난다. (Je mangeai, Je mangerais) 또한 如何한 文法價値

도 가지지 않는 音聲 綴字單位가 있다.

(例 Avant donc que d'écrire, apprenez à penser.

J'aime à faire de longues promenades en forêt.

이와같은 文中에서는 que, à는 아무런 文法價值도 가지고 있지 않다. 文法價值가 낱말의 規準이라고 한다면 上記한 音聲, 綴字單位는 어떻게 說明할 餘地가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音聲語는 단순히 記號지만, 文法語는 本質적으로 하나의 가치인 것이다.

上述한 바와같이 낱말이 音聲上이나 綴字上의 變化에 의해서 文法價值的 差異點을 考察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語種이나 Cathégorie를 區別할 수 있고, 또한 一致의 現象에 依해서, 識別符號(accent 같은 것)에 의해서도 重要한 統辭機能을 表示할 수가 있다. 이와같은 形態上의 變化는 文法上의 變化의 結果인 것이다. 文法上의 變化가 形의 變化를 招來하고 그 體系를 規則化한다. 낱말이 文法價值的 變化를 받아 音聲上으로 커다란 變化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단어에 따라 다른 單語가 그를 形成해서 文法關係를 表示할 때 짧아져서 그 結果 發音은 變化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것이 從屬要素가 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例 名詞에 對한 形容詞) 그것들은 부수적인 性質을 가지고 있다. 強한 accent를 弱하게 하고 e는 無音이 되는 경향을 취하고 母音省略은 반드시 行해진다. Dauzat가 言及한 것처럼 “母音省略은 낱말 中에 앞에서는 行해지는 경우가 적고 또한 文中에서도 앞에서는 거의 行해지지 않는다. (例 Tu r'viens?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Reviens! 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Quel' p'tit' voiture! 라는 發音을 들때 확실히 把握할 수 있는 現象이지만 이러한 現象의 例는 프랑스語의 歷史속에서 許多히 찾아 볼 수가 있다.”⁴⁾

文法價值를 表示하는 形態가 音聲法則의 影響으로 그 形態의 모습이 은폐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形態가 나타난다. 그만큼 文法價值的 機能은 큰 것이다. 冠詞나 活用되는 代名詞같은 文法上의 標示語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音聲體系가 價值體系 속에서 混亂을 惹起시키는 것은 多少 있겠지만 그것은 偶發的인 影響에 지나지 않는다. 一般적으로 音聲要素는 言語의 價值 또는 心理傾向을 同伴하는데 不過하다. 여기에서 相關關係를 原因과 混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프랑스語에서 音聲要素가 機能上의 役割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이 프랑스語의 깊은 精神的 諸要素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異論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結論적으로 音聲要素는 言語의 4 가지 基本要素에 對해서 相互의인 영향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點에서 言語의 <衣裳>이 아니라 言語의 <身體>라고 말 할 수 있겠다.

4) Dauzat, Génie de la langue française, P.16

IV 結 論

言語를 研究하기 爲해서는 두가지 觀點으로 考察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言語의 進化를 通해서 考察하는 通時的 觀點이다.

둘째는 進化의 어떤 時期에 있어서 言語를 分析 考察하는 共時的 觀點이다.

筆者는 둘째 面을 重点으로 두고 프랑스어의 4가지 基本要素를 綜合的이고 有機的인 組織方法으로 그 機能과 相互關係를 考察해 보았다.

事實上 本稿에서 筆者는 이러한 試圖이 너무나 어려운 作業임을 體驗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學界에 이 分野에 대한 새롭고 진지한 研究가 있어야 되겠다는 信念을 가지게 되었다.

이 作業은 프랑스어의 共時的 研究의 첫 段階의 試圖요 그 可能性을 一次 考察해 본 것이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音聲體系의 機能的인 役割이 다른 體系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서 部分的인 한 問題의 提示에 不遇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本稿는 音韻研究의 基礎的인 作業을 試圖했고 音韻分析에 對한 研究는 紙面을 달리하여 考察할까 한다.

Bibliographie

- 1) Albert Dauzat, Le génie de la langue française, Payot, 1947.
- 2) Albert Dauzat, Tableau de la langue française, payot, 1957.
- 3)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55.
- 4) André Martinet, É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A. Colin, paris, 1970.
- 5) André Martinet, Le français sans fard,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9.
- 6) Georges Galichet, Essai de grammaire psycholog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8.
- 7) Walther. V. Wartburg, Problème et méthodes de la linguist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3.
- 8) Charles Bally, Linguistique générale et linguistique française, A Franche, 1965.
- 9) René Georquin, Guide de langue française, André Bonne, 1969.
- 10) André Martinet, La description phonologique, Genève-Paris, 1956.

Summary

A study on the organic formation of the phonetic element in French

Koh Won-Hee

In order to study language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that must be considered : One is a diachronic point of view ; the other is a synchronic point of view. I have treated the formation and the structure of four fundamental elements in French, from mainly a synchronous point of view. I have attempted to illustrate the function and the mutual relationships in French with the method of organic formation.

1. The relationship of the phonetic element and the graphic element :

In this article I have emphasized the originality of the phonetic system in French as a system of expression. The phonetic system in French consist of 19 vowels and 17 consonants. Particularly, there are 19 diphthongs and 3 triphthongs in English, but modern French shows a tendency to keep away from this complicated vowel modulation except for accidental diphthongs.

It is characteristic of its consonants that the phonetic keyboard in French is so extensive.

So to speak, if 17 consonants and 19 vowels are associated, it may be possible that several hundred letters are also associated.

There are six kinds of phonemes in French; But there are scarcely words that contain more than six phonemes. This point shows us a remarkable contrast with German, in that in French there is a tendency to prefer short words to long ones.

If we compare this phonetic system to another language (ex. English and German etc.) , French vowels do not have as complicated a formation nor a middle sound as in English. One does not find either an aspirate or a stiff sound as in German, nor stop-sound as in English and German.

Therefore, the effect is one of clearness, precision and clear-cut which is a unique peculiarity of the phonetic system in French.

2. The relationship of the phonetic element and the semantic element :

For linguistic value, the grammarian insists on emphasizing differential value more than the positive value. In other word,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importance

in the words is not in the sound itself but in the phonetic contrast.

How we can really distinguish one word from another is determined by the phonetic difference, and this difference can produce significance.

For instance, this difference (1) can distinguish the homograph, (2) can precisely distinguish the prefix and suffix that is not clear in orthograph.

It is noteworthy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tendency of analogy can cause an important confusion, a phenomenon which Dauzat called "the paronymous attraction." as a result, the words are more or less transformed and expressed in entirely different meanings from their originals.

This occurrence shows well how the phonetic element influences on the semantic element.

3. The relationship of the phonetic element to the grammatical element :

There are frequent occasions when the phonetic element has much effect on grammar.

This is because the phonetic element has a remarkably promotive effect, though it does not bring about the transformation of the syntactic system.

In addition, the phonetic monotone in the French sentence has an effect on grammar.

French is not an inflected language, partly because it does not have a sufficient amount of accents.

Therefore, it became a tendency for word endings not to be pronounced clearly. As a result, it became necessary to insert special words (prepositions, articles and pronouns of conjugation) instead of inflectional word endings. The analytic tendency in French is thus promoted.

Generally, the phonetic element is nothing but an accompaniment to the linguistic value and psychological tendency. And so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phonetic element can play a fundamental role in French.

In this study I have explored a fundamental work of phonology. The analytic study of phonology will appear in a following issue.